

한문 정답

1	②	2	⑤	3	③	4	②	5	④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①
11	③	12	④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①	20	③
21	③	22	⑤	23	⑤	24	①	25	②
26	②	27	③	28	③	29	②	30	④

해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쓴다.
그림은 봉황새 문양이다. ② 봉새(봉)
-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를 안다.
두 한자는 뜻 부분과 음 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성자로, ㉠은 '符'로 음이 '부'이고, ㉡은 '洪'으로 음이 '홍'이다.
- [출제의도]** 자전에서 조건에 맞는 한자를 찾는다.
'張'의 음은 '장'이고, '胃'의 부수는 '肉'이며, '當'의 총획은 13획이다. 정답은 '腸'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어에 활용한다.
②의 공통 부분에는 '招(부를 소)' 대신 '招(부를 초)'가 들어가야 된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공을 던지다'와 '광속구'라는 말을 통해 ㉠에 들어갈 한자가 '投(던질 투)'임을 알 수 있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쓴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매연을 줄여 맑은 공기를 되살리자는 '환경' 관련 공익광고이다.
- [출제의도]** 한자어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금연 권장 포스터를 활용하여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 마음가짐, ㉡ (다른 것에) 몸을 기댄.
- [출제의도]** 성어의 속 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그림의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도서관의 광경에서 '不夜城(불야성)'을 연상할 수 있다.
- [출제의도]**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을 안다.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덕)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은 '나무를 심다'는 뜻으로 <술목 관계>이다. ③ 절전: 전기를 아껴 씀. <술목> ① 무리에서 뛰어난. <술보> ② 귀함과 천함. <병렬> ④ 마음과 힘을 다하여 펼쳐 일어남. <수식> ⑤ 해가 비침. <주술>
- [출제의도]** 성어의 속 뜻을 안다.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千載一遇'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속 뜻을 안다.
'절세가인 - 화용윤택'은 둘 다 '미인'을 뜻하는 말로 유의어 관계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속 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그림은 똑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묘사한 내용이다.
- [출제의도]** 명언구를 속 뜻을 알고 일상 생활에 활용한다.
무릇 닭갈비란 그것을 먹으려면 먹을 것이 없고, 그것을 버리자면 아까워할 것 같다.
'계륵'에 관한 고사로, '그다지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가 아까운 사물'을 일컫는 말이다. ⑤ 저는 먹지 않으면서

도 남 주기를 아까워한다는 속담이다.

14. [출제의도] 선인의 삶과 지혜를 이해한다.

그 모습을 단정히 할 수 있으며, 그 몸을 살필 수 있다.

거울의 용도를 설명한 글이다.

15. [출제의도] 성어의 속 뜻을 알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④의 ㉠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고, ㉡은 '무슨 일을 너무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더디게 됨.'을 뜻하는 말이므로 관계가 없다.

16. [출제의도] 속담의 속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옛 시조 두 편의 주제는 '남이 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노력해서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은 '말 가는 데 소도 간다.'인데 이를 한역하면 ④가 된다.

17. [출제의도] 선인의 삶과 지혜를 알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신라 때에 보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문고를 50년 동안 배웠는데 어떤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었다. 마침내 '현학금'이라고 불리었는데, 또 '현금'이라고도 불리었다.

신라 때 거문고 명인인 '보고(寶高)'에 관한 전기문이다. 글에서는 보고가 거문고를 50년 동안 배웠다고 하였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18 ~ 19]

-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였다.
-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자기의 사욕을 이겨 인에 돌아감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이겨 인에 돌아가면 온 세상이 인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유자가,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효'와 '제'라는 것은 아마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8. [출제의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공자가 제자들이 인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각기 재능에 따라 답변을 달리한 내용을 통해 공자의 교육방법을 유추하는 문항이다. ① 인재시교: 재능에 따라 가르침을 베푼다.

19. [출제의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유자는 '효제(孝弟)'가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모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대상은 가족에서 출발됨'을 알 수 있다.

[20 ~ 21]

고구려는 그 백성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마을이 이슬한 밤에 남녀가 때로 모여 서로 나아가 노래하고 놀았다. 시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 안의 많은 사람이 모이니 이름을 '동맹'이라 하였다.

20.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킨다.

가무를 즐기던 고구려의 풍속에 관한 글이다. ① 수렵도 ② 씨름도 ④ 수박도 ⑤ 신선도

21.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③은 속음에 따라 '시월'로 발음한다.

[22 ~ 24]

옛날에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라 하는 것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고 의혹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닐진대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의혹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누구든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도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앞선다면 내가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요, 나보다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도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면 내가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하거니, 어찌 그 나이의 나보다 먼저 나고 뒤에 남을 개의하리오. 이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것이요,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니라.

22.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스승'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볼 것을 강조한 글이다.

24. [출제의도] 한자의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의 문맥적 의미는 '어찌'이다.

[25 ~ 27]

허자가 "옛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하였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땅의 모양이 정원(正圓)이라고 말씀하시니, 어찌된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실용이 "심하구나! 사람들을 깨우치기 어려움이며, 만물이 이루어진 형체는 둥근 것은 있어도 네모난 것은 없거늘 하물며 지구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달이 해를 가려 좀 먹는 일식에서 그 형체가 반드시 둥근 것은 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이요, 땅이 해를 가려서 좀 먹는 월식에서 그 형체가 역시 둥근 것은 지구의 형체가 둥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식은 지구의 거울이거늘 월식을 보고서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울을 가져다가 스스로 비춰 보면서도 그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라고 말하였다.

25. [출제의도] 전문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킨다.

②의 '첨성대'는 '천원지방'의 우주관이 반영되었다.

26. [출제의도] 한자문화권내에서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실학자인 홍대용이 지원설을 주장한 글이다.

27. [출제의도]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을 풀이한다.

반어형에 관한 문장의 풀이 순서를 묻는 문항이다.

[28 ~ 30]

- (가) 뜰 앞에 잎새 하나 떨어지고, 마루 밑 온갖 벌레 슬프구나. 훌훌이 떠남을 말할 수 없네만, 유유히 어디로 가시는가. 한 조각 마음은 산이 다한 곳까지, 외로운 꿈, 달 밝은 때에나. 남포에 봄 물결 푸르러질 때면, 훗날의 기약 그대 제발 잊지 마소서.
- (나) 평생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 술로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하네. 이불 속 눈물이야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 밤낮으로 눈물 흘러도 그 누가 알아주나.

28.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한다.

두 시에는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29. [출제의도]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오언율시이고, 1, 2구와 3, 4구와 5, 6구에서 대우가 활용되었다.

30. [출제의도] 한시의 시구를 풀이한다.

㉠ 이불 속 눈물이야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